

모든 진도군민에 '바람연금'... 세대당 매월 약 40만 원 전망

진도군의 추진력과 국회의원 협력 결실... 전라남도 지원 속 3.6기가와트 집적화단지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에 '진도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3.6GW)'를 지정함에 따라 진도 해역이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진도군에는 2033년까지 약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은 1단계(1.47GW)와 2단계(2.13GW)를 합쳐 총 3.6기가와트(GW) 규모의 대단위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3~4기와 맞먹는 거대 용량으로, 약 25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수준이다.

▲ 21조 원 규모 민간 투자 전망... 진도군 '고정 수입'만 3,000억 원대

이번 지정의 가장 큰 성과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다. 총사업비 20조 원과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비용 1조 600억 원 등 전체 21조 원이 100퍼센트(%) 민간 자본으로 투입된다.

특히 진도군은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

지 지정에 따라 2031년부터 매년 막대한 한전전력기금 수익금을 배분받게 된다.

단계별 수익은 1단계에서 연 46.7억 원, 2단계에서 연 107.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20년간 총 3,084억 원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게 되어 지방재정 자립도의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890억 원(특별지원금 826억 원, 기본지원금 64억 원)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 세대당 연 436만 원 '바람연금'...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 모델의 승리

단순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넘어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의 길도 열렸다. 이른바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다.

진도군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비의 4퍼센트(%)를 투자한다면 관내 16,329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당 연평균 약 436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접 지역에 따라 세대별로 최대 1,0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20년간 총 1조 4,2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 진도군-지역구 국회의원-전라남도 '삼각 공조'가 만든 쾌거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행정의 승리'라고 평가된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을 신청

한 후 불과 반년 만에 지정을 끌어낸 배경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국회의원의 중앙 정치권 관계망(네트워크)과 진도군의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진도군민은 물론 송전선로 경과지인 해남군민들까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연말까지 군 작전성 협의 등 남은 과제도 긴밀히 협의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봄빛 머금은 순천만,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 운영 3월 말 람사르길 벚꽃길 따라 흑두루미와 마지막 인사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0일까지 봄의 시작과 함께 흑두루미 복상시기에 맞춰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순천만에는 약 8,600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찾아왔으며, 현재 약 1,800여 마리가 머물고 있다. 이들은 3월 말 번식지를 향해 대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순천만 람사르길은 3월 말이면 봄빛이 피어나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대표 봄 명소로, 이 시기 흑두루미의 북상과 맞물려 특별한 풍경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올해 마지막 흑두루미를 관찰하면서 계절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 시는 흑두루미의 안전한 이동을 기원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전에 예약 프로그램인 ▲흑두루미 배웅 탐조 ▲흑두루미 뱀피 나누기는 흑두루미를 관찰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더한다. 현장에서는 ▲흑두루미 솟대 만들기 ▲흑두루미에게 보내는 편지 ▲갈대 '복' 빗자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흑두루미의 생태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봄빛이 피어나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대표 봄 명소로, 이 시기 흑두루미의 북상과 맞물려 특별한 풍경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올해 마지막 흑두루미를 관찰하면서 계절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 시는 흑두루미의 안전한 이동을 기원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전예약 프로그램인 ▲흑두루미 배웅 탐조 ▲흑두루미 뱀피 나누기는 흑두루미를 관찰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더한다. 현장에서는 ▲흑두루미 솟대 만들기 ▲흑두루미에게 보내는 편지 ▲갈대 '복' 빗자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흑두루미의 생태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은 주말에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운영되며, 사전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암군이 17일 군청에서 전라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테크노파크와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은 영암군과 전라남도가 협업하여 13일 해양수산부가 전국 공모한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선정되어 단지 내 어선 건조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0억원 유치에 성공한 후속 조치

영암 대불산단,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선정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국비 400억 확보, 미래형 어선 건조 지원

다.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핵심인 어선 건조 지원센터는,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어선 건조를 지원하고, 국내 어선 건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확보된 국비는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운영을 목표로 대불산단에 센터 건립과 첨단 장비 구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진흥단지 지정과 센터 건립이 조선업 고도화를 바라는 대불산단

20여 어서 건조사와 90여 연관 기업을 포함해, 인근 지역 관련 기업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의 핵심 기관이 될 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해 조선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지역 조선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어선 시장을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침체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이차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50개소를 선착순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 원,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연 3% 이차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년간 총 180만 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

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휴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061-729-0625)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

성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15개 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별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별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화천지점, 별교지점) 등 총 15개소다. 보성/김윤기 기자

강진군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유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

강진군, 유가상승 대비 주유소 합동점검 실시

정량·품질·가격표시제 집중 단속 공정한 에너지 유통 질서 확립

법행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석유 최고가격(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 준수 여부, 석유제품의 품질 및 정량 검사, 불

법 유통 실태 단속,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석유제품 시료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가격표시제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 실시

상습 체납차량 현장 즉시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광양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단속 대상 차량은 총 2,691대이며, 체납액은 약 20억 1천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징수와 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주간 1개 반과 야간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나눠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역에서 현장 단속을 실

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ARS(142-211),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와(☎061-797-2741, 329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